

시인으로서의 강용홀

김 옥 동*

흔히 최초의 한국계 미국 작가로 일컫는 강용홀(姜鏞訖, Younghill Kang)은 『초당』(*The Grass Roof*, 1931)과 『동양 사람 서양에 가다』(*East Goes West*, 1937) 같은 장편소설을 출간한 뒤에도 소설가보다는 오히려 시인으로 대접받고 싶어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아예 “나는 시인이다” 하고 잘라 말할 정도로 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적어도 이 점에서 그는 소설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평생 동안 자신을 ‘실패한 시인’으로 자처한 동시대의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와 아주 비슷하다. 포크너에게도 강용홀에게도 시는 첫사랑이었고, 그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사람처럼 평생 동안 시에 대한 미련을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모든 문학 장르 가운데에서 시를 첫손가락에 꼽은 그들에게 시는 소설이나 희곡보다 인간 경험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예술이었던 것이다.

특히 유가(儒家) 전통에서 자란 강용홀에게 시가 차지하는 몫은 무척 컸다. 동양 문화권에서 시는 정치권력에 진입하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비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양이었다. 미국에 건너가기 훨씬 전 어린 시절부터 강용홀은 주로 한문으로 시를 즐겨 지었고, 미국에 건너간 뒤에도 한시와 영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국 땅에서 어렵게 고학하면서도 그는 시에 대한 정열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걸쳐 강용홀을 잘 알고 있던 한 친구는 “고학살이에 피로한 몸을 끌고 방안에 들어오면 시를 쓰노라고 머리를 긁곤 했다. ‘하루에 한 편의 시를 못 쓰면 그 날은 공(空)이다!’ 이것이 그의 생활 정식(定式)이었다”¹⁾고 전한다. 이렇듯 강용홀은 시에 대하여 거의 강박관념을

느끼고 있었다.

강용홀이 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하는 것은 뉴욕 시에서 일어난 일화 한 토막에서도 잘 드러난다. 1930년대 초엽 맨해튼에서 자동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에게 붙잡히자 강용홀은 그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언제나 시인이라는 칭호를 무슨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김옥동 59). 강용홀의 이러한 태도는 시인이나 학자가 깊은 산 속을 지나다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중국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시는 귀신도 몰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시는 이국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동양 선비 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1

강용홀은 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그가 창작한 작품은 별로 없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서 한문이건 우리말이건 또는 영어이건 그가 직접 창작한 시 작품을 찾아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강용홀이 쓴 작품은 『초당』을 비롯한 그의 소설에서 간접적으로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물론 소설에서 주인공 한청파가 쓴 작품을 강용홀 자신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적잖이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한청파는 허구적 인물이면서도 상당 부분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인공이 쓴 작품을 강용홀의 작품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비록 무산되고 말았지만 강용홀은 『초당』의 곳곳에 삽입한 작품을 비

* 서강대 영미어문·영미문화 교수

1) H. 풍문생(風蘭生), 「재미 우리 문인 동태」, 『우라키』 제7호(1936년 9월), 92쪽. 이 글을 쓴 'H. 풍문생'은 1920년대 말엽과 1930년대 초엽에 걸쳐 강용홀과 친하게 지낸 한흑구(韓黑鵠)인 듯하다. 한세광(韓世光)이 본명인 한흑구는 강용홀과 함께 한때 유미조선학생총회 또는 북미유학생총회가 발행한 우리말 잡지 『우라키』의 편집을 맡았다.

못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번역한 작품을 한데 묶어 한 권의 시집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²⁾

『초당』에는 강용홀/한청파가 직접 쓴 창작 시가 두세 편 삽입되어 있어 비록 어렵게나마 그의 창작 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My world is full of many lofty hills,
 And down their side the sparkling streamlet trills:
 The many-colored birds fly swiftly by,
 The soft-toned feathered warblers of the sky,
 While in the winding, rippling mountain stream
 The dancing, curving fish of silver gleam.
 In Summer I go toward the greenwood tree
 And lie, and sing, and play, and watch the bee.
 In Autumn I go out and watch the moon
 And listen to the tree tops' sleepy croon.
 In Winter I look out upon the snow
 And wonder where those brilliant flakes will go.
 In Spring I watch to see the flowers rare
 Come up to scent the warm, entrancing air.
 For trees, and flowers, and clouds and birds of May
 Are now my friends and shall be, I do pray.

2) 강용홀과 관련한 전기 자료에는 1929년에는 『동양시 번역』(*Translations of Oriental Poetry*)이라는 번역 시집이, 1930년에는 『중국·일본·한국시 사회집』(*Anthology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Poetry*)이라는 번역 시집이 각각 뉴욕의 프렌티스-홀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으로 나와 있다. 강용홀은 1929년 12월 『한국 학생 불리턴』에 만해 한용운의 「이별은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라는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으면서 1930년에 출간될 『중국·일본·한국 시 사회집』에서 옮겨 실는다고 밝힌다. 그러나 한국계 미국 학자 월터 류(Walter K. Lew)는 『동양시 번역』이 미국의 상업 출판사에 의하여 출간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다. 류는 하버드 대학교 와이드너(Widener) 도서관에서 타자본으로 되어 있는 이 번역 시집을 발견하였는데 마분지로 된 겉표지에는 프렌티스-홀을 출판사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용홀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이 번역 시집을 프렌티스-홀 출판사에서 출간하려고 교섭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 같다. 또한 이 두 시집은 비록 제목은 달라도 동일한 시집인 듯하다. Walter K. Lew, "Before *The Grass Roof*: Younghill Kang's University Days," *Korean Culture* 19: 1(Spring 1998): 29.

(The Grass Roof 14)

이 작품은 한청파/강용홀이 어린 시절에 한문으로 지은 시이다. 이 작품은 작가와 주인공이 태어나 자라난 함경남도 홍원군 운학면 산양리의 고향 마을 송둔지의 전원생활을 소재로 목가적 이상향을 다룬다. 첫 행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화자(話者)의 세계는 아직 평화스럽기 그지없는 고향 언덕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위로 높은 구름이 솟아 있고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는 이 고향 마을이 그의 소유주이다. 이 작품은 소년의 감수성에 걸맞게 아주 감각적이다.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를 비롯하여 온갖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자못 목가적인 이 작품은 여러모로 영국 낭만주의 전통의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특히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그림자가 자주 어른거린다. 나무와 꽃, 구름과 새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지막 두 행은 워즈워스의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와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계절의 순환을 말하면서 봄부터 시작하지 않고 굳이 여름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만약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노래하였다면 자칫 단조롭고 진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봄을 건너 띄고 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과 겨울을 거쳐 봄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단조로움과 진부함을 깨뜨린다. 또한 화자는 봄을 맨 마지막에 두어 어떤 계절보다도 봄에 무게를 실는다. 다시 말해서 열두 달 가운데에서 5월이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물론 화자는 앞으로 이러한 목가적인 이상향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평화로운 송둔지 마을은 곧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히게 되면서 황폐화된다.

한청파/강용홀의 시 작품은 화자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주제나 형식에서 크게 달라진다.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점차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압도한다.

『초당』의 후반부에 삽입되어 있는 한 작품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To-night why does my heart
Feel loneliness?
Starless the sky when I look up,
Flowerless the wilderness I wander.
You do not frighten me, O darkness.
I would not fear death's darkness.
I am weary of this world, its men and women!
O gods, if there be any gods,
Forever wrap the muse's wings around me.
Oh, lift me to her Never-Lonely kingdom!
(*The Grass Roof* 295)

이 작품에서 한청파/강용홀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느끼는 감회를 읊는다. 이 시는 방금 앞에서 인용한 작품과는 여러모로 사뭇 다르다. 일본 식민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어린 시절의 목가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외로움과 슬픔뿐이다. 하늘에는 별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들판에는 꽃 한 송이 찾아볼 수 없다. 이 작품은 위즈워스 풍의 낭만주의 대신에 엘저넌 찰스 스윈번(Algernon Charles Swinburne) 풍의 유태주의나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를 비롯한 프랑스의 세기말적인 퇴폐주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와 권태감에 지쳐 있다. 화자는 겉으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곧바로 그 다음 행에서 “나는 이 세상, 여자들과 남자들에 대하여 염증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세 행을 찬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비록 비극적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지만 뮤즈 신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찾는다. 그에게는 뮤즈 신의 영감을

받는 예술의 세계야말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낙원이요 영원한 불멸의 세계이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강용홀은 “나는 언제나 영혼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허감을 느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누런 황금이나 반짝이는 은이 아니었다. 나는 연인으로서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유령은 내 할머니의 유령이 아니었다”(The Grass Roof 295)고 말한다.

Ten thousand stars twinkle in heaven.
Uncounted frogs cry in a ruined village,
And all around the twilight echoes.
The song of frogs on this abandoned site
Is like a hoarse cry out of aching throats.
It sounds like wandering ghosts!
Oh, how the color of night trembles!
(The Grass Roof 301)

이 시도 한청파/강용홀이 고향에 돌아와 읊은 작품이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 잠깐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움과 절망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앞 작품에서와는 달리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지만 이제 수많은 별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한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마을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가 오히려 화자의 상실감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화자에게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일본 식민주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조국의 울부짖음과 같다. 또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혼백(魂魄)처럼 방황하는 유령이 울부짖는 소리라도 비슷하다. “오, 밤의 색깔이 몸을 떠는구나!”라는 맨 마지막 행에서 구사하는 공감각적(共感覺的) 이미지가 신선하다면 신선하다.

2

『초당』 같은 작품에 삽입하지 않고 강용홀이 직접 발표한 시 작

품도 있다.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에 썼다가 그로부터 10년 뒤 1929년에 발표한 “A Few Lines from My Diary”라는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강용홀은 이 작품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단체인 유미조선학생총회(留美朝鮮學生總會) 또는 북미 유학생총회(北美留學生總會)에서 발행하는 영자 신문 『한국 학생 불리틴(*Korean Student Bulletin*)』에 처음 발표하였다. 제목 그대로 이 작품은 일기에 적어 두었던 글을 기초로 쓴 시이다. 강용홀은 미국에 건너가기 전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종로 경찰서에 구금된 경험을 이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그는 “나는 마치 1919년 3월 2일 서울의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혹독한 경험으로 야기된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적었다”고 밝힌다(“A Few Lines from My Diary” 4).

The winds and clouds of the great War are gone, ---
 The dawning light of peace lightens the world.
 Freedom, Equality, Love emerge.
 Man unfettered, shall, arising cry Hurrah! Hurrah!
 For satisfaction, contentment, he never ceasing strives.
 Korea's Hope makes to quiver the undulating air.
 The temple of old Faiths and false principles
 shall fall from its foundations.
 Then shall the Temple of Faith and Truth as a lantern
 shed its light-fed oil of sacrifices.
 Unceasingly the mind of man seeks its goal.
 Now does Korea's soul struggle for the Light.
 In the fields stand the undecided sheep;
 How shall they find the fold without a shepherd?
 How great are their numbers! How few their shepherds!
 Who shall yoke you with your Master's food?
 Who shall give you satisfaction?
 Who shall give you Light?

(“A Few Lines from My Diary” 4)

이 작품에서 강용홀은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주의에 맞서 일어난 기미독립운동을 한바탕 바람과 구름이 휩쓸고 지나간 ‘위대한 전쟁’에 빗댄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눈에는 한낱 민중 봉기에 지나지 않을 사건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초당』에서도 그는 「기미독립선언서」 전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삽입할 만큼 이 운동에 무척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시에서도 강용홀은 기미독립운동과 더불어 마침내 한반도에 “자유, 평등, 사랑이 도래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작품은 『초당』에 실린 시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로서 충분히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같이 같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참다운 의미에서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산문에 가깝다. 시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시적 긴장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시적 리듬도 없다. 바꾸어 말해서 운문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시라고는 할 수 없다.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난 뒤 느낀 소감을 적어 놓은 일기문과 같다. 또한 아무리 ‘시적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언어 구사력이 서툴고 투박스럽다. 가령 열째 행의 “its light-fed oil of sacrifices”라는 구절은 오히려 “its oil-fed light of sacrifices”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넷째 행 “Man unfettered, shall, arising cry Hurrah! Hurrah!”은 문법적으로 어색하다. 또한 여섯째 행 “Korea's Hope makes to quiver the undulating air”라는 구절이나, 마지막에서 세 번째 행 “Who shall yoke you with your Master's food?”라는 구절도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뜻을 짐치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강용홀은 이 작품에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한다. 이 작품의 전반부는 어둠과 빛의 이미지가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의 화자는 “위대한 전쟁의 바람과 구름”이 걷히고 난 뒤 “평화의 빛”이 밝아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친다고 말한다. “낡은 신념, 거짓 원칙의 사원이 그 기초부터 붕괴되고” 나면 이번에는 그 자리에 “신념과 진리의 사원이 등불처럼 희생의 등유 불빛”을 비출 것이라고 밝힌다. 그런데 이 빛의 이미지는 서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양적인 것, 좀더 구체적으로 조선적인 것에 가깝다. 물

론 서구 문학에서도 빛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해 왔지만 “light-fed oil”이라는 구절을 보면 아무래도 동양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쪽이 더 옳을 듯하다. 서양에서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아직도 전깃불이 아니라 기름으로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문명의 빛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룩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그 동안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지금 아직도 어둠과 미망의 벽에 갇혀 있는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할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갑자기 어둠과 빛의 이미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양과 목자와 관련한 기독교적 이미지가 전면에 등장한다. 신약성서에서는 흔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떼는 그리스도를 쫓는 신자를 가리킨다. 이 작품에서 목자 없이 들판에서 방황하는 양떼는 조선의 민중을 가리키고, 목자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우매한 민중을 선도할 민족 지도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본 식민주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을 목자와 양떼에 빗대는 것이 웬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니 ‘은자의 왕국’이니 하는 우리나라를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빌려온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이미지를 빌려오려면 신약성서 보다는 구약성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빌려오는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이다.

강용홀도 이 점을 의식하였는지 이 작품에 불만을 많이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10년 전에 썼던 이 작품을 다시 읽어보니 적잖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용홀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작품도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혐오스럽게 느껴질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작품에 대하여 그는 “문학 예술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밝혔다. 그러면서 “잉크와 함께 내 피가 흘러 흰 종이 위에 그 검은 기호를 적어 놓았다”(4)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은 기미독립운동을 소재로 쓴 이 작품을 단순히 미학적 관점에서 보아서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민족 해방의 절박한 문제를 다루는

마당에 굳이 문학 예술의 형식에 구애받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평소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예술지상주의를 주창해 온 강용홀의 예술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언급은 의아하게 느껴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는 문학은 정치나 윤리 같은 이데올로기에 양도할 수 없는 문학만의 독특한 특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김옥동 321-22, 325-29).

3

강용홀은 시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시를 직접 창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을 쏟았다. 『초당』에는 한국의 옛 시조를 비롯하여 한국의 근대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작품 곳곳에 삽입한다. 물론 우리말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는 시인이기도 한 미국인 아내 프랜시스 킬리(Frances Keely)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이 번역시에 대하여 강용홀은 “한국 시는 이전에 서구어로 번역된 적이 없다. 우리는 원문으로부터 영혼과 미적 패턴 그리고 축어적(逐語的) 의미를 전달하려고 무척 노력을 기울였다”(The Grass Roof vi)고 밝힌다. 여기에서 ‘우리’란 두말할 나위 없이 강용홀과 킬리를 가리킨다. 강용홀의 지적대로 1930년대 이전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시가 영어를 비롯한 서구어로 번역된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적어도 이 점에서 그의 작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초당』에는 한시와 일본시 번역을 포함하여 무려 60여 편의 번역시가 삽입되어 있다. 이 중에서 옛 시조가 20여 편, 근대시나 현대시가 7편, 민요나 노랫가락이 9편, 일본시가 4편, 한시가 11편이다.

그러나 강용홀의 번역시는 창작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훌륭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시로부터 “영혼과 미적 패턴 그리고 축어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썼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번역은 이러한 의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을 국화를 노래한 옛 시조 한 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Chrysanthemum grows by the window
 Where the new wine waits to brew.
 The flower opens
 As the wine ripens;
 Friends flock;
 A full moon shine too.
 O Garcon! Tink-tink-a-tink the Kumoonko:
 Merrily, merrily sing the night hours through!³⁾
 (*The Grass Roof* 18)

첫 행의 “Chrysanthemum grows”라는 구절은 아무래도 단수형으로 “A chrysanthemum grows”라고 하거나 복수형으로 “Chrysanthemums grow”라고 하는 쪽이 더 옳다. 셋째 행에서 “The flower opens”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수형으로 표기하는 것이 문법에 맞을 것이다. “술 익자 국화 피고 벗님 오자 달 또한 돌아온다”는 중장에서 ‘벗님 온다’를 “Friends flock”으로 옮기는 것도 그다지 걸맞지 않다. ‘flock’이라는 동사는 군중이나 사람의 떼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사람보다는 조류 같은 날짐승의 떼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색한 번역은 일곱째 행의 “O Garcon! Tink-tink-a-tink the Kumoonko”에 이르러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난데없이 “garcon”이라는 프랑스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번역시를 읽는 독자들은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원문의 ‘아이야’라는 호격을 프랑스어 ‘garcon’으로 옮기는 것은 마치 한복에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강용홀도 이 점을 느꼈는지 20여 년이 지난 뒤 이 작품을 다시 번역하였다. 조국이 해방된 뒤 미군정청의 출판부장 자격으로 1년 반 동안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몇몇 영문학자와 친교를 맺었고, 영

3) 이 시조는 진주 기생 산홍(山紅)이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작자 미상의 『채봉감별곡』에 삽입되어 있다. “창밖에 국화를 심어 국화 밑에 술 빚어 두니 / 술 익자 국화 피고 벗님 오자 달 또한 돌아온다 / 아이야, 거문고 내어 청(淸)쳐라 벗님 대접하리라.” 중장의 내용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가령 “벗님 대접하리라”라는 구절은 “밤새도록 즐겨 보리라”로 되어 있다.

문학자요 시인인 수주(樹洲) 변영로(邊榮魯)가 편집하여 1947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시집이라고 할 『진달래 숲』에 번역시 일곱 편을 실었다. 그런데 이 일곱 편의 작품 중에 이 산홍(山紅)의 작품이 들어 있다.

Chrysanthemum grows by the window,
By it set wine to become old.
The flower opens, the wine ripens,
Friends come, and a moon also.
Strum the Kumoonko, boy,
We will waste away the night till dawn.

(Pyun 47)

강용홀은 초장의 첫 구절 “Chrysanthemum grows”는 그대로 두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더 원문에 가깝도록 크게 개작하였다. 예를 들어 “Friends flock”을 “Friends come”으로, “A full moon shine too”를 “and a moon also”로 바꾸어 놓았다. 초장과 중장의 개역보다도 특히 종장의 개역이 눈에 띈다. 또한 “O Garcon! Tink-tink-a-tink the Kumoonko”를 “Strum the Kumoonko, boy”로 고쳐 훨씬 원문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garcon’이라는 낱말보다는 ‘boy’이라는 낱말이, “Tink-tink-a-tink the Kumoonko”라는 표현보다는 “Strum the Kumoonko”라는 표현이 이 작품의 분위기에 훨씬 더 잘 어울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종장의 후반부도 “Merrily, merrily sing the night hours through!” 보다는 “We will waste away the night till dawn”로 옮겨 원문 (“밤새도록 즐겨 보리라”)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Tree you are not,
Grass you are not,
Nothing is more straight than you.
Inside why are you so clean?
Bamboo, for this besides I love you,
All four seasons you are green!

(Kang, *The Grass Roof* 49)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오우가」 중 대나무를 읊는 작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원문의 묘미를 제대로 살려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행과 넷째 행 “Inside why are you so clean?”은 원문 중장의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강용홀이 왜 속이 비었다는 말을 속이 깨끗하다는 말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용홀은 산홍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윤선도의 작품도 다시 번역하여 『진달래 숲』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새 번역에서 그는 넷째 행을 “Besides why are you so clean?”이라고 고쳐 놓으면서도 ‘so clean’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라는 중장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이 시는 작품의 소재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종의 정의시(定義詩) 또는 ‘수수께끼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과연 무엇을 읊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바로 작품의 묘미가 있다. 그런데 강용홀은 “Bamboo, for this besides I love you”라고 옮겨 윤선도가 노래하는 대상을 직접 거론한다. ‘bamboo’라는 낱말을 직접 사용하는 순간 이 작품은 탄력을 잃어 버린 용수철처럼 갑자기 긴장이 풀려 버린다.

강용홀은 『초당』에 삽입한 작품 말고도 우리 시 작품을 몇 편을 더 영어로 번역하였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로 시작하는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작품과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으로 시작하는 계랑(桂浪)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다. 강용홀은 이 두 작품을 1929년 10월 『한국 학생 불리턴』에 동시에 발표하였다.

Night on the Autumn river,
Waves on the water sleeping:
The line is cast,
The fish do not bite.
Unfeeling moonlight only

In an empty home-turning boat.⁴⁾
("Korean Poems" 3)

이 작품에서 강용홀은 초장의 “물결이 차다”라는 표현을 “물결이 자다”로 잘못 읽어 “Waves on the water sleeping”으로 오역하였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일 터이지만 “Waves on the water”라는 표현도 어색하다. 또한 종장의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누나”의 번역도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 물론 강용홀은 이 번역시에서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애쓴 흔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오역과 지나친 의역으로 원문의 맛을 살려내지 못하였다.

Peach blossoms were raining down spendthrift,
When after weeping embraces my lover departed.
Now in the Autumn wind the leaves drift,
And I wonder if he too is thinking
Thousands of *lis* away of the same lonesome dream
Which alone lingers, thither and yon.⁵⁾
("Korean Poems" 3)

이러한 오역과 의역은 계랑의 작품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볼 수 있다. 강용홀은 초장의 첫머리 “이화우 흠뿌릴 제”에서 ‘흠뿌리다’라는 말을 “raining down spendthrift”로 옮겨 놓았다. ‘절제 없이’ 또는 ‘해프게’라는 뜻을 지닌 ‘spendthrift’는 ‘흠뿌리다’라는 낱말과는 그 의미에서 적잖이 거리가 멀다. ‘흠뿌리다’는 ‘흠날리다’니 ‘흠뜨리다’니 할 때처럼 여기저기 흩어지도록 뿌리는 것을 말한다. 계

4) 이 작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5) 이 작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화우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량은 원문에서 배꽃이 마치 비가 하늘에서 흩어져 내리는 듯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강용홀처럼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원문의 맛을 살리기 어렵다.

중장의 번역도 초장의 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를 강용홀은 “Now in the Autumn wind the leaves drift, / And I wonder if he too is thinking / Thousands of *lis* away of the same lonesome dream”으로 옮겨 놓았다. 전반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반부는 올바른 번역으로 볼 수 없다. 강용홀은 ‘이별한 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화자는 가을바람에 나뭇구는 낙엽을 보고 ‘이별한 님’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용홀의 번역에서는 ‘이별한 님’이 ‘외로운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문에도 없는 ‘the same’이라는 구절을 덧붙여 놓은 까닭도 ‘이별한 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용홀은 중장과 종장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번역한 과오를 범하였다. 옛 시조는 장르의 관습에서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이 의미 단위에서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듯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초장은 생각이나 느낌을 도입하는 부분이고 중장은 도입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전시키는 부분이며 종장은 발전시킨 내용을 토대로 결론짓는 부분이다.

강용홀은 종장에 이르러서도 원문의 뜻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다. 첫째는 그가 중장의 원문 “저도 날 생각난가”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앞의 두 장과 비교하여 종장의 우리말 구사가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기기에 까다롭기 때문이다.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에서 ‘천리에’는 화자와 ‘이별한 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thousands of *lis* away”라는 구절을 읽고 영어 문화권 독자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를 “the same lonesome dream / Which alone lingers, thither and yon”으로 옮겨 놓은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강용홀은 ‘이별한 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나’가 아닌 ‘외로운 꿈’으로 이해하다 보니

꿈을 설명하는 부분을 관계대명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오락가락 하노매’라는 구절에 이르러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강용홀은 “lingers, thither and yon”이라고 옮겼지만 원문과는 적잖이 차이가 난다. ‘오락가락’이라는 의태어는 “할머니가 동구 밖을 오락가락하며 손녀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할 때의 ‘오락가락’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오락가락’은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를 듯 말 듯 하는 모양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마디로 강용홀은 월산대군의 작품 번역에서처럼 계량의 작품 번역에서도 원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미적 패턴’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4

강용홀은 한국의 근대시인 중에서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을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생각하였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승려 시인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시인으로 꼽았다. 강용홀에게 한용운의 『님의 침묵』(1925)은 시집 중에서도 시집이었다. 강용홀은 일본의 군사 정부가 이 시집을 금서로 지정하기 전에 이 책을 입수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무렵에 벌써 “혁명적이지만 고도로 동양적인 이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Kang and Keely 6). 그러므로 1920년대 말부터 강용홀이 아내 프랜시스 킬리와 함께 한용운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용홀의 한용운 작품 번역은 뜻밖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의 번역이 과연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는 한용운이 시집의 제목으로 삼은 「님의 침묵」을 한 예로 들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A lover is gone

O my lover gone away
as you loved me so I loved you!

A robber has taken
all color away
green from the mountain
red from the valley

has plundered trees
has heaped dead leaves
across the way
even the way is gone.

(Kang and Keely, *Meditations of the Lover* 17)

첫 연(聯)의 셋째 행 “as you loved me so I loved you!”라는 구절은 원문에도 없는 내용을 강용홀이 임의로 집어넣은 것이다. 이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고무줄을 잡아당긴 것처럼 팽팽하던 시적 긴장이 갑자기 풀어져 버린다. 사족(蛇足)이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이다. 또한 첫 행의 ‘님’도 부정관사 ‘a’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관사 ‘the’로 표기하는 쪽이 더 옳다. 여러 ‘님’ 가운데 막연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그 누군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힌 조국을 가리키건, 화자가 그토록 갈구하는 초월적인 절대자를 가리키건, 이승에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가리키건 그 ‘님’은 화자가 잘 알고 있는 특정한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 작품과 시집의 제목에서는 ‘Meditations of the Lover’라고 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왜 ‘a lover’라고 표기하였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목에서도 ‘침묵’을 ‘명상’으로 옮긴 것도 지나친 의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한용운의 작품에 명상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상’으로 옮기다 보면 역시 님이 지키고 있는 ‘침묵’의 뉘앙스를 놓쳐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 연도 문제이지만 둘째 연에 이르면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 번역시 둘째 행 첫머리에 강용홀은 어처구니없이 “A robber has taken / all color away / green from the mountain / red from the valley”라고 옮겨 놓는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도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님’과 이별을 말하는 마당에 왜 갑자기 강도가 산에서 튀어나와 모든 빛을 빼앗아가 버렸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사태가 이 정도이고 보면 의역의 수준을 뛰어넘어 오역이라고 할 만하고, 오역 치고도 아주 심각한 오역이다. 원문에 보면 강도가 모든 빛을 빼앗아 가 버린 것이 아니라 ‘님’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따라 떠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언뜻 영어의 ‘lover’와 ‘robber’가 뜻은 사뭇 달라도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 효과를 노린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좀더 찬찬히 뜯어보면 이 낱말의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 모운법(母韻法)을 노리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lover’과 ‘robber’는 ‘시각 운’(eye rhyme)일 뿐 참다운 의미의 운이 아니다. 설령 참다운 모운법에 기초하여 음악적 효과를 노렸다고 하더라도 원문의 내용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번역시의 세 번째 연 “(A robber) has plundered trees / has heaped dead leaves / across the way / even the way is gone” 역시 잘못 번역하기는 앞의 두 연과 마찬가지로이다. 원문 시를 아무리 살살이 읽어보아도 강도가 나무를 약탈하고 낙엽을 긁어모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강용홀은 “푸른 산 빛을 꺼치고”를 나무를 약탈한 것으로,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를 낙엽을 긁어모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듯하다. 아무리 오해라고는 하지만 우리말의 뜻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연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역과 오역이 심하다. 가령 “새 희망의 정수박이”이라는 구절을 “wellspring of new hope”이라고 옮겨놓은 구절에 이르러서도 고개를 가우뚱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수박이’란 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수박이는 ‘정수리’를 가리키는 사투리로 한자로는 정문(頂門), 뇌천(腦天), 신문(凶門) 등으로 일컫는다.

평소 소설가보다는 오히려 시인으로 대접받고 싶어하였고 평생 동안 한용운에 대하여 지칠 줄 모르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막상 강용홀이 시를 번역하는 솜씨는 의외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한 아내 프랜시스 킬리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번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게 곳곳에서 지나친 의역과 오역이 눈에 띄는 졸속 번역임이 드러났다. 이 번역 시집에 대하여 서평을 쓴 이창배(李昌培)도 “강용홀의 『님의 침묵』의 번역은 그가 영어로 작품을 써 온 작가이고, 공역자인 부인 킬리 여사는 영어 상용자(常用者)인데다 시인이라는 점에서, 다시없이 좋은 번역 팀을 이루어, 그 번역에 완벽할 것을 기대했으나, 의외로 실망이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622) 하고 솔

직히 털어놓는다. 또한 제임스 웨이드(James Wade)도 이 번역이 강용홀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밝힌다. 『초당』에서 인용하는 시가 자유롭고 유려하다면, 『님의 침묵』은 어딘지 모르게 맥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Wade 57).

한편 강용홀은 『님의 침묵』의 번역에 애뜻한 마음과 함께 적지 않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한 좌담회에서 강용홀은 “저는 번역을 많이 해 봤는데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30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번역을 했지요. 현대 시는 더욱 번역이 어렵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글자에 나타난 의미 말고 그 속에 숨은 뜻을 표현하기가 힘이 들거든요”⁶⁾ 하고 밝힌다. 30년이라면 무려 반평생에 가까운 세월을 이 작품을 번역하는 데 바쳤다는 말이다. 이 시집을 번역하는 데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쉽게 미루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자구(字句)에 얽매이지 않고 함축적(含蓄的) 의미를 읊기려고 무척 애썼다는 것이다.

강용홀의 『님의 침묵』과 관련하여 이창배는 번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한용운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 모처럼 좋은 역진(譯陣)과 출판사를 만나서 잘만 되었더라면, 과연 그가 타고르에 못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엘리엇의 후기 명상시를 방불케 하는 대시인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애석한 일이다”(이창배 624) 하고 밝힌다. 이 번역을 읽고 싶노라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서양 격언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님의 침묵』은 한용운의 작품을 영어권 세계에 널리 알리기보다는 그의 작품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그 탁월한 젊은 승려 시인”에게 적잖이 누를 끼친 결과를 낳았다. 의욕만 앞섰지 막상 능력이 따라주지 못한 것 같다.

이창배는 이렇게 강용홀의 번역이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는다. 첫째는 강용홀이 너무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글을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시를 번역해 본 일이 없거나 시를 써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독자에게 시로써 전달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첫 번째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늘 지적하듯이 두 언어를 똑같이 유창하게 구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모국어이든 외국어

6) 「한국 문학의 문제점」, 『동서문화』 제1호(1970년 9월), 43쪽. ‘재미 교포 작가 좌담회’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이 좌담에는 강용홀을 비롯하여 소설가 김은국, 시인 전정열이 참가하였고 문학 평론가 김우종이 사회를 맡았다.

이든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추측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강용홀은 소설을 발표하기 전 1929년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시를 번역하여 『동양 시 번역』 또는 『중국·일본·한국 시 사회집』이라는 책을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시도 써서 친구들에게 줄줄 읊어 줄 정도였다.

강용홀이 『님의 침묵』의 번역을 모두 마친 것은 1948년이였다. 번역을 마치자마자 『초당』을 비롯하여 『행복한 숲』(*The Happy Grove* 1933)과 『동양 사람 서양에 가다』를 출간한 뉴욕의 잭스 스크리브너스 선스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였지만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하였다. 그러다가 이 시집이 가까스로 햇빛을 본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1970년이였다. 그가 제37차 국제 펜클럽대회에 귀빈 자격으로 고국을 방문한 것과 거의 때를 맞추어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어 나왔다. 이렇게 뒤늦게 이 번역 시집이 출간된 사정을 이제 알 것 같다. 물론 번역 시집이 상품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역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어느 출판사도 선뜻 출판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5

강용홀의 번역 솜씨에 의구심을 나타낸 것은 비단 최근이 아니며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번역을 처음 시도한 무렵부터 야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그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부터 강용홀의 시 번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가령 『초당』에 관한 한 서평에서 호레이스 H. 언더우드(Underwood)는 강용홀이 이 소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 친구들 중 몇 사람은 그의 번역에서 “향기가 사라지고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밝힌다. 물론 언더우드 자신은 강용홀의 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한 나라의 언어로 된 시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문의 맛’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강용홀의 번역은 “원문의 ‘정신’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러면서 그는 강용홀이 출간하기로 약속한 번역 시집이 어서 빨리 출판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였다(261-62).⁷⁾

흔히 번역은 반역(反逆)이라고 한다. 그만큼 한 나라의 작품을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긴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뜻이다.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시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면서 한 나라의 작품을 다른 나라 언어로 옮겨 놓고 난 나머지가 바로 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시란 다른 나라 언어로써는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번역 불가론을 언급할 때마다 프로스트의 이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비록 이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강용홀의 번역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강용홀은 시에 대한 의욕만 앞섰지 막상 시를 쓸 능력은 없었고 또한 시를 번역하는 솜씨도 생각만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역시 시인보다는 소설가였다. 문학사에 그의 이름이 남는 것도 시인보다는 오히려 소설가로서이다. 『초당』과 『동양 사람 서양에 가다』 같은 장편소설로 그는 미국 문학사에서 한국계 미국 문학, 더 넓게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첫 장을 열었다. 또한 한국 문학사에서든 재외 국민 작가 또는 이산(離散) 작가로서 이정표를 세웠다. 강용홀의 문학적 생애를 볼 때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주제어 : 강용홀, 한국계 미국 문학, 소수민족 문학, 번역 이론

7) 『초당』에 관한 최초의 서평 중의 하나에 속하는 이 글은 최근에 출간된 서정민 편역, 『한국과 언더우드』(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4)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서평의 번역에는 이 책에 수록된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오역이 너무 많다.

인용 문헌

- 김옥동. 『강용홀: 그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창배. 「한국시역상(韓國詩譯上)의 문제점」. 『문학과지성』 통권 5호(1971년 9월): 618-24쪽.
- H. 풍문생(風聞生). 「재미 우리 문인 동태」. 『우라키』 제7호(1936년 9월), 92쪽.
- 좌담, 「한국 문학의 문제점」, 『동서문화』 제1호(1970년 9월): 42-44쪽.
- Kang, Younghill. "A Few Lines from My Diary." *Korean Student Bulletin* 7. 1 (March 1929): 4.
- Kang, Younghill. "Korean Poems." *Korean Student Bulletin* 7. 3 (October 1929): 3.
- Kang, Younghill. *The Grass Roof*.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1.
- Kang, Younghill, and Frances Keely, trans. Yong-Woon Han, *Meditations of the Lover*. Seoul: Yonsei UP, 1970.
- Lew, Walter K. "Before *The Grass Roof*: Younghill Kang's University Days," *Korean Culture* 19. 1 (Spring 1998): 22-29.
- Pyun, Y. R. ed. *Grove of Azalea*. Seoul: Kukje Publications, 1947.
- Underwood, Horace H. "The *Grass Roof*: A Review." *Korea Mission Field* 27. 12 (December 1931): 260-62.
- Wade, James. "Younghill Kang's Unwritten Third Act," *Korea Journal* 13. 4 (April 1973): 57-61.

Abstract

Younghill Kang as a Poet

Wook Dong Kim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some poems written by Younghill Kang(1903-1972) who has often been hailed not only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writer, but also as one of the first Asian American writers. Although he wanted to be recognized as a poet rather than a novelist, his poems fell short of expectations. Imitative of such an English Romantic poet as William Wordsworth, they are often immature and ill-conceived. The same can be said of his translations of Korean poems. Aided by his wife Frances Keely who published poems in the United States, Kang translated some traditional and modern Korean poems. His command of English, however, is not refreshing. In rendering some Korean poems into English, he fails to grasp the original savor and spirits. In particular, co-translation by Kang and his wife of Yong-Woon Han's *Meditations of the Lover* are notorious for mistranslation and near-mistranslation. In sum, Younghill Kang was a novelist, but hardly a poet.

key words : Younghill Kang, Korean American literature, minority literature, translation studies